

발제신청서 및 발제문

단체 이름	단체 대표 성함	발제신청자	
다준다 연구소	이동학	한민호	
참가하게 된 동기 & 얻어갔으면 하는 것			
<p>‘청년 문제를 청년 스스로 일어나서 해결하자!’</p> <p>이렇게 청년들이 모여서 생각을 교류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하면 그게 자연스럽게 청년 정치세력화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한다.</p>			

발제문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주장이 담기면 더욱 좋습니다. ex. ~~로 ~~를 하자!)
조직된 청년들의 힘이 세상을 바꾼다
지정 질문 (3 분이내 발제할 수 있는 내용)
Q1. 청년이 스스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서는 것이 필요한가요? 구체적 근거나 예시를 들어주세요.
Q2. ‘청년 정치세력화’, 혹은 ‘청년 정당’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어떤 의미를 지닌다고 생각하시나요?
<p>○ 청년들의 정치세력화는 물론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정치세력화의 ‘주체’와 ‘목적’이다. ‘누가 어떤 이유로 정치세력화를 하는가?’를 고민해야 한다. 비정규직/정규직, 아르바이트 노동자/청년 창업가, 지방대학생/SKY 대학생, 고시생 등 청년 안에서도 스펙트럼은 다양하고 각각의 해결책은 달라야 하며 때로는 해결책이 상충되는 경우도 빈번한 게 현실이다. 이런 청년 안에서의 차이에 대한 인식이 없이 그저 청년이라는 정체성만으로 정치세력화를 목표로한다면 한국사회에선 얼마 못 가 한계에 부딪힐 것이다.</p> <p>○ 청년의 정치세력화와 청년정당은 또 다른 문제이다. 보통 한 사회의 큰 갈등과 균열이 있을 때, 그것과 관련된 의제가 정당의 형태로 나타나곤 한다. 거기서 정당정치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균열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약해지거나</p>

사라지는 균열이 있다. 유럽의 사례를 보더라도 기존의 물질주의적 계급균열이 아닌 반권위, 생태, 여성, 지역, 세대 등의 탈물질주의적 가치를 대변하는 정당의 세력은 시간이 지나 기존 정당이 탈물질주의적 이슈에 빠르게 적응함에 따라 급격히 약화되었다. 결국엔 콘텐츠가 핵심이라고 생각하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청년문제는 청년문제 그 자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책을 펼치는 것 이외에 다른 핵심적인 부분을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청년 고용할당제’, ‘창업지원 비용 저리 대출’, ‘청년 주거지원’ 등의 청년정책은 계속해서 확대되어 왔는데 왜 청년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지는지 생각해봐야 한다.

Q3. 2016 년 총선, 17 년 대선을 염두에 두었을 때, 청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들이 어디까지 행동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ex. 투표, 정책 발의, 선거운동, 입후보, 창당 등)

○ 청년문제는 당사자운동으로서 해결해야 한다. 청년들이 정당, 노동조합, 시민단체, 연구소 가입 등을 통해 더 많은 청년들을 조직화하고 이것으로 정치권을 압박할 수 있어야 한다. 정치권이 가장 신경 쓰는 건 조직된 표이다. 또한 청년세대가 스스로 정치권에 진입하려는 시도도 해야 하는데, 그것에 굉장한 걸림돌이 되고 있는 정치관계법을 개혁하는 운동도 해야 한다. 예컨대 현행 정치자금법은 지방의원에 출마한 후보자는 필요한 정치자금을 모으기 위한 후원회를 조직할 수 없다. 선거운동기간도 13 일밖에 안돼서 정치신인이 자신을 유권자들에게 알릴 시간도 부족하다. 사회적 자산이 어느 정도 있는 기성세대, 기성 정치인에 비해 청년세대에게 불리한 법이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가진 자산이 적은 청년이 정치를 하는 건 상당히 큰 위험부담을 안는 구조이다.

지정 질문 외에 하고 싶은 이야기 혹은 참고자료 (자유 분량)

발제에 필요한 실무준비가 있나요? (ex. PPT 를 써야한다, 영상을 봐야한다)